



텔레비전 드라마 속 모성 판타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정영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A Study on Motherhood Fantasy in Television Dramas

Analyzing a KBS2 drama, *When Camellia Blooms*

Young-Hee Chung*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for Information & Cultur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notions and norms of mother and motherhood projected in popular television dramas. A KBS2 drama, *When Camellia Blooms* (2019), was selected for analysis. The drama started with a view rating of 6.3% and continually updated the highest rating, ending at 23.8%. It generally gained acclaim for the marketability, topicality and workability, and received many awards. *When Camellia Blooms* was chosen for analysis for the various types of mothers and motherhood behind the main plot of a love affair between the heroine and hero. In the drama, the fantasy of motherhood, which frequently appears in popular cultur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mothers' story. In this study, text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ext analysis has the advantage of providing a deep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levision and viewers and television and society by paying attention to the latent meaning of the text. The analysis focuses on the characters, the relationships of main characters, and the episodes in which the main characters perform their roles. Since the dialogue is one of the forms to convey the character and role of the characters to viewers relatively clearly, the dialogues in which the characters directly mention the mother, mothering, and motherhood were analyzed as important.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When Camellia Blooms*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motherhood is an instinct and destiny, an absolute value connected to a mother (female), implied as unconditional and unshakable in any environment. The practice of motherhood had to be moral and pure. The drama reflects the recognition that motherhood goes through the stages of maturity in a specific direction, and that maturity is intertwined with the stage of child growth and is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children. Such motherhood was passed on and ultimately expanded into the realm of the community. Motherhood and femininity were expressed as values that could coexist, but motherhood was perceived as a priority over life for women. In addition,

* yeongsol@hanmail.net

the fatality of the maternal deficiency was emphasized. It was thus found that our society's expectations of the 'normal motherhood,' the fantasy of motherhood that could not exist, were not lost, but were hidden in the abyss of our society. The story of motherhood in *When Camellia Blooms* limited the possibility of 'mother', which is also a strategic base for women to create new power relations themselves, to the framework of patriarchal perception.

Keywords: Television dramas, Mother, Mothering, Motherhood, Feminism

1. 들어가는 말

드라마는 텔레비전의 생산물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장르이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 드라마를 개시하면서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1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월평균 4.66편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지만 200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월평균 7.86편이 방영되었다(정영희, 2019). 그만큼 텔레비전 드라마가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따라서 학술 분야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특정 시대에 유행하는 이야기에는 동시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감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지나온 것을 담아내는 문화적 용기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텔레비전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민감한 변화를 담아내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일종의 사회적 아비투스(habitus)라고 표현하는(원용진, 2002)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지배적 가치와 욕망, 특정 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과 사회적 요구를 포착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큰 화제가 되었다. ‘자식에게 그들이 듣지 않게 평생을 바친 어머니와 자식에게 ‘뭐든지 딱 하나만 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어머니가 드라마 속에서 재조명된 것이다. 최고 시청률 23.8%로 종영한 <동백꽃 필 무렵, 이하 동백꽃>의 이야기이다.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와 연쇄 살인범 추적을 줄거리로 시작된 드라마는 중반 이후 이야기의 중심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졌다. 그 결과 ‘모성’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이우진, 2019, 11, 11).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적인 엄마가 있었고, 평생을 펴주고도 늘 자식 걱정인 어머니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만들었다(양소영, 2019, 11, 22). 물론, 다양한 모성을 조명했다는 평가도 있었다(이정현, 2019, 12, 4). 하지만 드라마 홈페이지에 ‘편견에 갇힌 여자가 편견을 깨고 나오는 이야기’라고 소개된 것이 무색하게, 여주인공의 적극성과 독립성보다는 엄마, 어머니, 공동체의 모성과 보살핌이 더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동백꽃>은 우리 모두를 위로했고(이정현, 2019, 11, 22), ‘웰 메이드’ 드라마라고 평가받았다(이경희, 2019, 12, 3). 한 조사에 의하면 2019년 11월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월별 1위’였다(한국갤럽, 2019, 11, 12). 하지만 그러한 평가가 어머니 혹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드라마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전통적인 모성이 과다하게 강조되어(송주연, 2019, 11, 16)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불편함이 야기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자 말고 그냥 엄마로 행복하고 싶어요.”(18 화)¹⁾라는 여주인공의 말은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모성에 대해 생각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다.

본 연구는 <동백꽃>에 나타난 어머니 이야기의 근간을 형성하는 모성에 대한 규정과 규범을 분석한 것이다.²⁾ 모성에 대한 규정은 사회·역사적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해지는 어머니의 모습만 묘사되어왔을 뿐, 어머니 노릇의 막중한 책임감과 그것이 어머니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어머니 노릇의 이면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동백꽃> 역시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 ‘어머니’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 희생을 수용하게 하여 가부장적 기획에 포획되는 개념으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여성 스스로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채성주, 2009).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그러한 양면적 가능성을 가진 어머니 혹은 모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동백꽃>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백꽃>에 나타난 모성에 대한 규정과 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잘 만들어진 대중문화 텍스트가 담고 있는 모성에 대한 우리 시대의 기대와 판타지를 밝히고 모성의 새로운 가능성에 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모성 논쟁과 한국 사회의 모성 인식

‘모성’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모성은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 뿐 아니라 양육 및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단일하게 정의되기가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육체적 성질, 또는 그런 본능’(국립국어원, *n.d.*)으로 정의되어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모성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발현하는 본성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성은 본질성, 무조건성,

1) 동일 부제 하에 1일 2회 35분씩 방송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 부제 하에 방송된 2회를 1화로 표기하였다.

2) 모성은 영어 maternity와 motherhood의 번역어이다. maternity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의미한다면, motherhood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의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개념이다(천성림, 2003). 모성 인식은 출산적 모성(maternity), 양육적 모성(mothering), 그리고 어머니로서 필요한 성품, 자질과 같은 인성적 차원을 의미하는 모성 정체성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최은영, 2014). 본 연구에서는 maternity, mothering, motherhood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모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생물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측면까지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대치 불가능성이라는 세 가지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윤혜린, 2005).

모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의 본질적 정체감을 이루며 더 나아가 여성은 '모성'이라는 생물학적, 태생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통념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통념은 모성을 자식의 안녕을 위해 건강, 쾌락, 야망과 같은 영역에서 어머니의 희생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소모적인 정체성으로 정의하기 때문에(Ruddick, 1995/2002) 여성에게 특히 억압적이었다. 그런데, 모성에 대한 이러한 통념은 출산한 여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세라 러딕(Ruddick, 1995/2002)은 여성은 '상상을 통해 모인 집단(imaginative collective)'으로 출산 행위와 출산의 상징,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호와 보살핌의 책임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온 상상된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러딕이 말하는 어머니는 생물학적 출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mothering)을 하는 사람이며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어머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적 역할과 관련하여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개인의 습관과 환상은 어머니 역할을 여성에게만 제한시키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정책에 의해 증폭되어왔다(Ruddick, 1995/2002).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은 잠재적인 어머니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기대된다. 안젤라 데이비스(Davis, 2012)는 여성들이 모성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66명의 여성(엄마)을 인터뷰하여 밝혀낸 바 있다. 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전업 주부, 파트타임 주부, 독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모성을 여성의 공통 경험으로 여기며 갈등하고 있었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의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왔고 모든 여성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보살핌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기대는 가족 울타리 밖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할 경우 그 여성 혹은 여성 집단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이연정, 1999).

1960년대 말 ~ 1970년대 초,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그러한 모성 및 어머니 노릇에 관한 규정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1980년대에는 모성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어머니가 되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되는 경험에 중점을 둔 주장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모성에 대한 비판은 한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온 모성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입장이,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남성에게 의해 규정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행되어왔다(이연정, 1999). 오늘날 여성주의 입장에서 모성에 관한 접근은 모성이 사회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연구로 모아지고 있다.³⁾ 이 연구들은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는 다

3) 모성에 관한 대표적 저서 <만들어진 모성>에서 엘리자베트 바뎡테르(Badinter, 1980/2009)는 모성은 만들어진 것

르고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한다(이정옥, 1999). 하지만 여전히 모성에 관한 논의는 어머니 노릇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가부장적 모성 담론과 여성의 주체적인 모성론이 충돌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모성을 규정해온 역사는 남성의 눈과 귀, 입으로 말해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나의 어머니',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어 역사 속에 배치되어 왔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여성은 '나의 어머니'로 칭송되었고, 모성은 말 그대로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었다(정지영, 2005). 대중문화 속에 여전히 잔존하는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서사가 한국 사회의 모성에 관한 통념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여성이 생애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존재라고 사유되는 잠재적 어머니 담론이 강하다. 그 결과 생물학적 어머니가 '좋은 엄마'가 되는 핵심적 조건으로 인식되며 출산자 어머니에게 우월한 위치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의 일상에 편재된 IMF 이후 저출산·고령 사회화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장려주의가 표방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모성이 사유되는 방식도 변화하였다. 본질주의 모성론을 비판하면서 모성에 대한 다른 문화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경아, 2009), 모성을 리더십과 연결하려는 시도(김영옥, 2005; 이상화, 2005), 한국에서 모성이 사유되는 방식의 변화를 감지하려는 질적 연구(최은영, 2014), 1990년대 모성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신경아, 1999)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어머니 경험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증가하여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지 않는, 또는 입양과 같이 생물학적 출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머니의 위치가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최은영, 2014). 한국 사회에서 생물학적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강하고 출산이 독려되었지만 여성 개인의 경험 세계에서는 출산적 모성의 의미가 약해졌다. 그에 따라 모성의 생물학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생물학적 속성과는 무관한 모성의 발현이 이루어졌다. 양육적 모성의 발현으로 모성은 구매, 대행, 위임 가능한 것으로 사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구성되지 않았고 '엄마

으로, 모성에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만들어지며, 또한 자녀들에게 베푸는 보살핌이라는 기회를 통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능적인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모성애는 모든 여성에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아버지, 유모 등)도 자식을 보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인투가 모성애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리 엘 서러(Thurer, 1995/1995) 또한 역사적 현상으로서 어머니가 처했던 삶의 실상, 즉 '유모 제도'와 '자녀 유기' 관행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헌신이라는 현대의 모성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성의 신화를 벗겨보고자 했다.

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논리가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변화된 모성 인식의 주체들은 모성의 버거움과 과부하를 숨기지 않으며 주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중심주의 속에서 양육적 모성의 제반 영역은 위임, 대행의 형태로 상품화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서 경제 주체로서의 '맘(mom)'이 생산되었고(최은영, 2014), 모성 논쟁의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모성에 대한 기부장적 인식과 여전히 여성의 생물학적 잠재성을 강조하는 한국에서 여성들은 최근에 하나의 큰 비난에 맞아야 했다. 바로 출산을 저하의 책임 논란이다. 몇 년 전, 출생률의 현격한 저하를 여성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출산 장려책'이라는 명분으로 발표된 '출산 지도' 논란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여성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⁴⁾ 결혼하지 않은 여성,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 혹은 이기적인 반국가적인 집단으로 몰아간 것이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을 소위 '고스펙 여성'에게 돌리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향 선택하라고 권장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은 적도 있었다(김수정, 2017, 2, 26). 이후 여성계에서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간주하면서 동시에 저출산의 정책적, 사회적 요인은 무시한 채 오로지 여성의 책임으로만 몰고 간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2020년 현재, 한국 사회의 모성에 대한 논의는 양육 조건의 변화, 양육 방식의 변화, 취업 여성의 양육 문제 등의 현실적 차원이 함께 고려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물학적 모성에 대한 기대와 전통적인 모성 인식은 대중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모성에 관한 판타지를 재생산하고 있다.

2) 텔레비전 드라마 속 어머니

텔레비전 드라마 속 어머니 연구는 대부분 여성주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여성의 희생과 수동성을 전제로 하는 유교적 질서와 맞물려있고, 그것의 많은 부분이 시청자가 공감하는 지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 속 어머니들은 사회적으로는 약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강한 어머니로 묘사되어왔다.

이들 강한 어머니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자식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며 삶의 풍파를 헤쳐 나가는 억척스러운 어머니이다. 그들의 강함은 남성의 권위를

4)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출산 지도(birth.korea.go.kr)'에는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지원 혜택과 출생아수 및 합산 출산율, 초혼인율,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 등에 대한 통계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전국의 가임기 여성(20~44세) 현황을 붉은 색의 명도 차이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모양의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가임기 여성 수를 기준으로 전국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었다.

위협하지 않았고 남성 가장의 부재 혹은 약화라는 조건 속에서 가부장의 역할을 떠맡거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가부장 권위의 복원에 기여했다. 다른 하나는 우악스럽고 드센 아내나 첩, 악독한 시어머니 혹은 계모 등인데 이들은 개인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었다(이영미, 2011).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어머니의 강함은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만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 또한 사적 영역에 제한되어 나타났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드라마 속 어머니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희생적인 어머니,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어머니, 공동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어머니, 권력자 어머니 등 다양한 어머니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의 강한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사회적으로 야망을 가진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들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 가정에서 강한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통제하고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여 결국 가정을 파멸시킨다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어머니의 욕망이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야망을 가진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로서 묘사되었다. 이 역시 파멸하는 것이 보편적인 결론이었다. 이 시기에는 공적 공간에서 힘을 가진 여성 자체가 과대 재현되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여성의 강함은 오직 가정 내에서 부수적인 권력 자일 경우에만 허용된 것이다. 2011년 전후로는 드라마 속 부잣집의 권력자가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이영미, 2011).⁵⁾ 한국 경제계에서 활약하는 여성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드라마 속 여성 기업인이 과도하게 표현되고 재현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텔레비전 드라마 속 어머니 유형이 더욱 다양해졌음은 홍지아(2009a, 2009b)의 연구에 잘 나타난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 어머니(모성)에 대한 연구는 서사 전략 연구(홍지아, 2009a, 2009b), 재현 연구(권양현, 2019; 김미라, 2018; 이은지, 2019),⁶⁾ 모성 담론 분석(김강원, 2005)⁷⁾ 등 모성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이들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 어머니의 모습에서 모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여전히 가부장적 기획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미라(2018)는 드라마 <마더>에서 기존의 모성 신화를 해체시키는 모성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지

5) 주간 드라마와 일일연속극 모두에서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년 여성 어머니가 기업의 오너 혹은 최고 경영자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로열패밀리>(MBC, 2011)의 JK그룹 회장, <마이더스>(SBS, 2011)에서 노쇠한 아버지를 대신한 경영인 모두 중년 여성이다.

6) 이들 모두 텔레비전 드라마 <마더>(tvN, 2018)를 분석했다.

7) 노회경 작가의 드라마에 한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모성 연구라기보다는 작가론에 더 가까워 보인다.

(2019) 또한 〈마더〉가 기존의 모성 신화나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현한 것이 아니며, 〈마더〉에서 모성의 실체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수많은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체적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권양현(2019)은 〈마더〉가 남성의 질서가 만들어낸 신화적 모성에 포섭되지 않는 어머니들의 서사를 차용하기는 했지만 모성의 실존을 재현하기 보다는 기존의 모성 서사 구조를 답습하고 모성의 신성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마더〉는 견고하게 제도화된 모성을 극복한 텍스트는 아니라고 밝혔다.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모성에 관한 가부장적 서사와 새로운 가능성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잘 짜여있는 〈마더〉의 텍스트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러 개의 드라마를 분석한 홍지아(2009b)의 논문에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인 모성 재현의 서사 전략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홍지아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된 인위적인 생산물인 ‘상징적 경계’를 모성의 영역에 접목하여 한국 사회가 어떠한 어머니를 이상적인 어머니로 규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 경계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기제로 작용하는 맥락을 밝혔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대중 문화가 이상적인 어머니와 어머니 노릇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규정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분석 드라마가 2007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이다. 분석 사례는 적지만 텔레비전 드라마 속 어머니, 모성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경향이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모성 인식의 실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잘 만들어진 드라마’ 안에서도 모성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 지향적이라고 주장하며, 억압적이고 수동적인 동시에 해방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인 모성의 새로운 가능성(채성주, 2009)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 속에서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인기 드라마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2019년 KBS2-TV에서 방영된 〈동백꽃 필 무렵〉⁸⁾이다. 이 드라마는 6.3%의 시청률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면서 23.8%로 종영하였다. 최고 시청률 15%를

8) 2019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방영된 수목 드라마이며 총 20부작이다(35분 기준 40회).

넘기 시작한 14화 때는 'TV 드라마 화제성'면에서 1위였고, 이후 연속 4주 동안 화제성 지수에 서 1위를 기록했다(굿데이터코퍼레이션, 2019, 11, 26). 또한 잘 만들어진 드라마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상을 받아⁹⁾ 사실상 시장성과 화제성, 작품성 등 모든 면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드라마 중반 이후, 주요 에피소드마다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모성'은 <동백꽃>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동백꽃>에 나타난 어머니, 모성에 대한 규정과 규범은 모성 개념의 재사유를 요구하는 여성주의적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동백꽃>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스토리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야기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그 중심에는 대중문화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모성 판타지가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백꽃> 이야기 속의 모성에 대한 규정과 규범을 밝혀내는 것은 동시대의 어머니의 역할과 모성에 대한 기대를 밝혀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텍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분석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종종 있어 왔지만¹⁰⁾ 텍스트 분석은 내용의 심층적 의미(latent meaning)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텔레비전과 시청자, 텔레비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훈순, 2004). 따라서 텍스트 분석은 드라마의 서사에서 드러난 특정 개념이나 은연중에 표현된 이데올로기와 사회 통념 등을 분석하는 데에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텍스트 연구에는 내러티브 분석,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 분석,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 분석이 널리 쓰이며,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세계관과 특정 개념의 인식 양태도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특히 등장인물, 주요 인물 간의 관계, 주요 인물을 둘러싼 에피소드에 분석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는 기존의 대중문화 텍스트에서 검증된 캐릭터와 서사를 반복하여 재생산함으로써 불안정한 시장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서사에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 일정한 주제와 상황, 표준화된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김훈순·김명혜, 1996). 하지만 그러한 반복은 종종 시청자의 흥미 감소로 연결되는 데, 그 이유는

9) 2019년 KBS 연기대상에서 12개의 상을 받았고(동아일보, 2020, 1, 1), 제32회 한국PD대상에서 TV 드라마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다(김윤정, 2020, 4, 24). 또한 제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과 조연상, 극본상을 함께 수상하였다.

10) 김훈순(2004)의 논문에 텍스트 분석의 장점과 한계가 잘 정리되어있다.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극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의 반복에서 발생하는 지루함을 보완하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건들의 흐름으로부터 '존재물들(existents)', 말하자면 배경과 인물 등의 등장과 변화로 옮겨 놓는다(Kozloff, 1987/1992). 그러나 텔레비전 드라마는 대부분이 평범한 배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라마의 이야기를 지배하는 것은 인물과 인물 상호 간의 관계이다(Kozloff, 1987/1992). 그러한 인물들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며 인물들의 행위는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김훈순·김명혜, 1996; Propp, 197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등장인물, 주요 인물 간의 관계,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교차하는 에피소드를 분석함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에 내포된 가치와 관념을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드라마의 대사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비교적 명료하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전달 양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어머니, 어머니 역할, 모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대사를 모성에 대한 규정과 규범의 판단 근거로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이 방법론 측면에서 새롭지는 않지만 <동백꽃>의 모성 판타지를 분석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었다.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동백꽃>의 어머니를 생물학적 관련성과 세대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 내에서 각 어머니의 특징과 어머니 노릇의 초점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구분된 어머니 유형들을 비교하고 주요 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분석하여, <동백꽃>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는 모성에 대한 관념, 모성 실현의 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에 내포된 동시대 모성에 대한 기대와 판타지를 밝히고, 이러한 기대가 여성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성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4. <동백꽃 필 무렵>의 어머니들

<동백꽃>의 어머니 역할자는 생물학적 어머니, 모성의 실천자, 부재한 어머니로 구분될 수 있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성인 자녀의 어머니와 젊은 엄마로 구분되고, 모성 실천자는 공동체의 여성 구성원('옹벤져스'), 남편 혹은 남동생의 여성 보호자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별이나 사망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었다.

Table 1. Characters of Mother in the TV drama "When Camellia Blooms"

		Character Name	Career	Focus of mothering
Biological mother	Present	Deoksoon Kwak (Yongsik's mother)	Owner (gejang restaurant)	Sacrifice, support
		Jung-sook Jo (Dongbaeg's mother)	Housewife	Meal preparation
		Hwa-ja Lee (Jessica's mother)	Housewife	Problem solving
		Eun-sil Hong (Gyu-tae's mother)	Housewife	Interference
	Past	Deoksoon Kwak	Owner (gugbab restaurant)	Raising three children
		Jung-sook Jo	Pub employee, housekeeper, etc.	Child abandonment
	Young mother	Dongbaek Oh (Pilgu's Mom)	Owner (pub, drinking restaurant)	Interdependence
		Jessica (Rebecca's mom)	Freelance model	Neglect, indifference
	Motherhood realizer	'Ongvengers' (Members of the Women's Community)	Owner(merchant)	Care
		Jayoung Hong (Gyutae's wife)	Lawyer	Care
Hyang-mi Choi (Hye-hoon's older sister)		Pub employee	Absolute sacrifice, support	
No mother	Unknown (Hyang-mi's mom)	Room Salon Owner	Neglect	
	Unknown (Heungsik's mom)	Unknown	None	

1) 생물학적 어머니(Biological Mother)

(1) 성인 자녀의 어머니(Mother of An Adult Child)

성인 자녀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참견으로 인해 자식의 삶에 방해가 되는 어머니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여전히 미숙한 자식들의 보호자였다. 특히 광덕순은 희생적이고 인내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 모습으로 표현되어 <동백꽃>의 모든 어머니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① 팍덕순 (용식이 엄마)¹¹⁾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유복자 용식을 포함하여 세 아들을 키웠다. 남편이 화재로 죽자, 영혼을 달랜다며 굿을 하는 과정에서 무당이 남편이 빙의한 것처럼 속이자 바로 낚아채서 내쫓았고(14 화) 49재도 치르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을 정도로(14 화) 억척스럽고 강하게 오로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았다. 동백과의 연애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용식의 절대적 지지자이자 후원자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가부장의 역할을 대신한 전형적인 강한 어머니상이다. 현재, 웅산 상인회의 회장이며 공동체의 대소사를 챙긴다. 동백이 미혼모로 웅산에 들어와서 따돌림을 당할 때 동백의 '베프(best friend)'를 자처하며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다. 동백이 용식과 사귀고 있음을 안 순간 갈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백과 동백의 아들 필구를 받아들이며 공동체 어른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덕순은 아들 용식의 엄마이자 동백의 보호자이며 공동체의 여가장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② 조정숙 (동백이 엄마)

'여자는 엄마 팔자를 닮는다'는 말이 동백의 현실이 될까봐 불안해하며 산 인물이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기출하였고, 먹는 것이라도 해결하라며 일곱 살 동백을 고아원 앞에 버렸었다. 식모로 들어갔던 집의 남자와 재혼하였으나 사별하였다. 돈을 벌어서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 식당일, 청소, 술집 주방일 등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지문이 닳아 없어져서 파출소에서 신원 조회가 어려울 정도였다(6 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입양이 되었었고 정숙은 동백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는 줄 알고 안도했었다. 그러나 과양되었고 더군다나 미혼모가 되어 술집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변을 맴돌았다. 용기를 내어 동백을 만나러 간 날, 동백이 연쇄 살인범 '까불이'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것을 보고 스프링클러를 터뜨려서 동백을 구했다. 자신이 신장식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인 것을 알고 27년간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뒤편 하나는 해 준다'는 마음으로 동백을 찾아왔다. 생명보험을 동백의 앞으로 해주려는 것이다. 동백의 아들 필구를 '동백'이라고 부르며 어린 동백에게 못해준 것을 필구에게 해주었다. <동백꽃>에서 정숙의 공동체적인 역할은 전혀 없다. 먹이지 못해서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정숙의 어머니 역할은 1차원적인 것, 즉 자식을 먹이는 것에 집중되어있다.

11) 이하 모든 인물의 명칭은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으로 표기하였다.

③ 이화자 (제시카 엄마)

화자는 딸의 해결사이다. 딸의 첫 번째 결혼을 숨기는 것도, 사위의 여자를 찾아내는 것도, 딸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 딸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사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손녀를 돌보는 것도 모두 화자의 일이었다. 가부장적인 남편은 “상미(제시카 본명)가 다시 집에 오면 당신까지 쫓겨날 줄 알아. 당신이 애를 저 모양으로 키웠으니까 그렇지”(18 화) 라고 으박지르고, 화자는 그런 남편을 무서워했다. 딸의 실수는 곧 남편의 폭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의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그런 화자 때문에 딸이 철없이 자랐다고 비난하고 딸은 그런 엄마 때문에 ‘애처럼’ 컸다고 화자를 원망한다.

④ 흥은실 (규태 엄마)

은실네는 웅산의 일부자이다. 은실은 아들에게 헬리콥터 맘이다. 은실의 핸드폰에 남편은 ‘전생의 업보’로 저장되어있다(12 화). “꿀값도 유전”, “왜 자꾸 전화질 해?”(12 화)라는 대사를 보면 남편에게 기죽어사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들 규태에게는 생선살을 발라서 밥 위에 얹어주고(10 화), 이혼에 혼수를 두며(12, 13 화), 이혼하는 법원 앞까지 따라왔다(14 화). 하지만 살인 누명을 썼다가 며느리 자영 덕분에 풀려난 규태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엄마가 왜 와? 엄마가 오니까 자영이가 못 왔지”(18 화)라며 은실을 원망한다. 은실 역시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다.

(2) 젊은 엄마(Young Mother)

젊은 엄마들은 공통적으로 곁에 남자(남편, 연인)가 있다. 다만 자식이 우선인 엄마와 자신이 우선인 여자라는 차이점이 있다. 동백은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하려했고, 제시카는 엄마보다는 개인으로서 주목받고 싶어 했다.

① 오동백 (30대, 필구 엄마)

<동백꽃>의 여주인공이며 캐릭터 변화가 가장 큰 인물이다. ‘고아’, ‘미혼모’, ‘팔자 센’, ‘술집 여자’ 등 부정적인 수식어와 편견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있으나, 용식을 만난 후 변했다. 7살 때 생모에 의해 유기되었고 20대 초반에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하였다. 6년 전에 웅산으로 이사 와서 ‘까멜리아’라는 ‘술만 파는’ 술집을 열었고, 좌천되어 웅산 피출소로 오게 된 용식과 연애를 시작하였다. 용식은 동백을 ‘웅산의 다이애나’로 부르고 마을 남자들은 동백을 하대하며 이름을 부른다. 동백을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서는 ‘이쁘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많고, 아들 필구는 엄마에게 반말

하는 아저씨들과 엄마를 ‘짹짹이’ 아저씨로부터 엄마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들 필구를 강종렬(필구 아빠)과 관련 없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렬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연쇄 살인범이 위협해도 ‘까멜리아’에서의 일상생활을 계속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인생과 입장, 뒤편에 대해 존중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13 화). 하지만 수산시장에서 까불이의 방화에 노출된 장면(13 화)에서는 위협에 처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여성 희생자’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어서 드라마 홈페이지의 소개처럼 ‘강단 있고 원칙 있는’, ‘독립적이고 담담히 제 길을 가는’ 능동적인 여성인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부모, 공동체 등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최향미를 챙기는 유일한 인물이다.

② 제시카 (30대, 레베카 엄마, 본명 박상미)

프리랜서 모델이며 7만 7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스타이다. 그녀가 SNS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은 강종렬의 부인이기 때문이므로 ‘미세스 강종렬, 제시카’라는 타이틀에 집착한다. 야구 선수의 부인이지만 소위 ‘내조’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된다. 어학연수 3개월 갔다 온 경험으로 자신을 ‘뉴욕커’라고 표현하며 스스로를 ‘공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동선을 거의 생중계에 가깝게 SNS 상에 노출시키며 인증샷에 강박이 있고 ‘좋아요’ 댓글과 DM(Direct Message)에 집착한다. 강종렬과의 결혼은 사실상 두 번째이며 첫 결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출산하였고, 딸의 양육에는 관심이 없어서 딸은 양가 할머니가 번갈아서 돌보고 있다. 남편과는 별거 상태이다. ‘밀라노 유학’을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제16 화 〈공수교대〉편부터 개인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19 화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장면이 등장한다. 마지막 회에서 ‘SNS 스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엄마 화자로부터 독립하여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2) 모성 실천자들(Motherhood Realizer)

(1) ‘옹벤져스’, 웅산의 여자들

웅산의 여자 6명은 웅산의 경제권을 쥐고 있으며¹²⁾ 이들의 남편은 그녀들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한다. 이들은 덕순과 함께 상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동백을 따돌린 것도 이들이며¹³⁾ 마지막에

12) 웅산에서는 “계장 저작권이고 상속권이고 다 딸들 아니면 며느리 승계”(1 화)이다.

13) 마을 여자들은 ‘장미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도 ‘까멜리아’ 탓이며, ‘환락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동네 ‘개차반’ 되

동백을 감싼 것도 이들이다. 특히 박찬숙은 여론을 주도하는 실세이며, '원래 사람은 부대끼고 치대고 서로 신세도 지며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주의적 사고가 강하다(KBS, 2019). 이들은 계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서로의 아이들을 챙기며 공동 육아를 수행한다. 이들은 용식이 '기저귀 찰 때부터' 돌봐왔고¹⁴⁾ '완장 차기 좋아하는' 규태도 어릴 때부터 봐왔다. 동백은 웅산에 이사 온지 6년이 넘었지만 이들의 계에 끼지 못했으나 궁극적으로는 동백과 필구 모두 이들의 보호를 받았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 최향미와 살인자 박홍식은 이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2) 홍자영 (남편의 보호자)

변호사이며 동네에서 가장 고학력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혼사택일, 작명을 포함한 모든 대소사에 관해 자영에게 자문을 구한다. 남편(노규태)은 동네 유지의 아들이며 공교 출신의 안경사이다. 자영은 선자리에 나온 규태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며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다. 규태보다 연상이기 때문에 '차기 웅산 군수가 되고 싶은', '완장 차기 좋아하는' 규태는 이러 저러한 실수들을 해결해주는 자영을 종종 '누나'라고 부른다. 남편이 주 5일은 '까멜리아'에 드나든 것을 알고 자존심이 상해 복수를 결심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연쇄 살인범으로 몰릴 뻔한 남편을 구하고 재결합하였다.

(3) 최향미 (남동생의 보호자, 본명 최고은)

첫 회에 웅산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은 향미였다. 향미는 '까멜리아'에서 병뚜껑에 양주를 부어서 몰래 마시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했다(1 회). 동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말을 듣는 것과 달리 향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말을 한다. 술집을 전전한 경력이 있고 나이가 적든 많은 모든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손님상'에 앉아서 술을 얻어먹는다. 떡집 아저씨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규태에게 돈을 요구하고 서울서도 돈을 때먹고 잠수를 탄 상황이었다. 동백이 만들어준 전셋집 보증금도 다 쓰고 '까멜리아'의 쪽방에서 잠을 자며 싱크대에 머리를 감는다(4 회). 사람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1억을 '뺏겨서', 코펜하겐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4 회). 동백을 제외하고는 모두 향미에게 돈을 뜯겼거나 협박을 받고 있어서 이들은 향미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소한 것들을 흠치는 버릇이 있다. 결국은

는 것도 한 순간이라며 동백을 못마땅해 했다(2 회).

14) 용식은 골목이 같이 키웠으며, 오지현은 용식이를 코 닦아주며 키웠다는 말을 자주 한다(4 회).

동백의 돈 3,000만 원도 훔쳐서 달아났다. 까불이의 정체도 제일 먼저 알았지만 동백을 대신하여 배달을 나갔다가 살해당했다. 돈에 집착하는 향미의 행동은 코펜하겐에 있는 남동생을 위한 것이었음이 12 화에서 밝혀졌다. 정착금 1억을 모아서 코펜하겐으로 가려고 했고 남동생 혼자서 아내 병수발 하는 것을 걱정하며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¹⁵⁾ 향미가 살해된 후 용식이 코펜하겐으로 전화하자 남동생은 대뜸 누나에게 빛이 있는지, 있어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14 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희생했지만 버림을 받는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3) 어머니의 부재(No Mother)

〈동백꽃〉의 주요 인물 중에서 어머니나 여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최향미와 박홍식이다. 향미의 어머니는 술집을 운영하며 향미 남매를 방치했고 홍식의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았다. 홍식의 아버지는 ‘벌어먹고 산다고’ 홍식을 챙기지 못했고 홍식은 친구도 없이 ‘맨날 고양이만 죽이는’ 아이로 성장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잡아 온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거짓말하거나 ‘뺨 따구’를 쳐보는 정도였다(20 화). 결국은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자, 아버지 스스로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를 못 쓰는 것처럼 행동하며 6년을 버텼다. 홍식이 아버지 다리 멀쩡한 것을 알고 다시 살인을 시작하자 아버지는 스스로 홍식을 대신하여 살인자 누명을 썼다. ‘엄마 없으면 인생 망나니’라는 향미와 까불이가 된 ‘엄마 없는 불쌍한’ 홍식의 이야기에서 양육과 보살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5. 텔레비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타난 모성 인식

1) 모성의 절대성: 본능, 운명, 무조건성

〈동백꽃〉의 모성에 대한 인식은 덕순, 정숙, 동백 등 중심인물의 행위와 대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포착할 수 있다. 덕순의 모성은 ‘에미’라는 단어와 ‘천성이 엄마’라는 인물 소개글(KBS, 2019)과 아들 용식을 향한 표현들에 함축되어 있고, 정숙의 모성은 반복적으로 내뱉는 ‘뭐든 하나는 해 준다는 각오에 잘 나타나 있다. 동백의 모성은 ‘엄마로서 행복하겠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해왔고 앞으로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표

15) 그런 동생에게 “나도 너 같은 싸가지 필요 없어, 서로 연 끊고 살자”(12 화)며 냉정하게 말했지만 이 또한 동생의 ‘정을 떼 주기’ 위한 말이었다.

현하였다.

모성은 어머니의 본능이자 운명이라는 인식은 정숙-동백의 관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여기서 모성은 자연의 섭리만큼이나 명징한 것이며 본능적이어서 동물적 감각을 수반한다고 표현되었다.¹⁶⁾ 정숙이 ‘배라도 굶지 말라고’ 동백을 버렸지만 27년 동안 동백의 주변을 맴돌면서 자식에게 해가 되는 요소들을 살펴왔다. 병이 들어서는 ‘목숨 값’인 생명보험금을 주기 위해 나타났다. 이러한 정숙의 행동을 동백은 뼈꾸기에 비교하였고 엄마의 존재를 신의 대리자에 비유하였다. 이는 모성을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는 속성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자식이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하지만 성장해도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은 죽을 때까지 모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¹⁷⁾ 그래서 모성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실천해야 하는 운명인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한 모성은 강하고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참아야 했다. 인내하는 어머니, 자식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든 견디어 온 어머니의 모성은 ‘30년 동안 저켰으니 이번에도 저’달라는 용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¹⁸⁾ 여기서 덕순의 모성은 절대적, 희생적, 무조건적이고 견고하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어머니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나약한 젊은 정숙의 모성은 덕순의 모성과 결이 조금 다르다. 드라마 초기에 정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식을 떠난 모성의 가장 부정적인 형태를 보여준 인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식을 위한 것이었고 자식에게 생명보험금을 남기기 위해 돌아왔음이 밝혀진 순간부터 정숙의 모성은 목숨을 거는 희생적인 것임을 상징했다. 나이 든 어머니가 목숨을 자식을 위한 희생의 도구로 삼았다면 젊은 엄마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희생하고자 했다. 동백은 “니를 두고 결혼하려 하나?”는 이들의 한 마디에 연애를 중지하고, ‘엄마’로만 살기로 결심했다(18 화).

어머니들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어머니는 자신을 타했다. 덕순은 용식이 범죄자에게 칼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용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행에서 강도를 잡은 날을 떠올리며, 그날 공과금 내라고만 안했으면 운명이 달라졌을까라며 자신

16)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더니…….’(15 화, 동백 독백), “짐승의 애미도 자식한테 해 끼칠 놈은 백리 밖에서부터 알아…….”(15 화, 정숙), ‘뼈꾸기는 결국 제 자식들 자리를 못 떠난다’(15 화, 동백 독백)는 대사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17) “애를 고아원에 버리고 천원 김밥 사서 소풍가게 만들고 필구도 혼자 넣고 몸도 혼자 풀었는데 ……”(16 화, 동백), “군대에서 선임에게 귀통베기 맞았을 때 군대로 닭 300마리 튀겨난 여자여……, 용식이 뒤에 덕순이 있어”(15 화, 덕순) 라는 대사에서 성인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18) 아들 용식이 동백과 사귀는 것을 알고 덕순은 엄마와 동백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 그러자 용식은 30년 동안 저켰으니 이번에도 저 달라고 말한다(5 화).

을 탓하고(1 화), 정숙은 동백이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동백 또한 필구가 학교에서 기가 죽어오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자책하였다. 자식의 현재를 '내 탓'으로 생각하는 모성 실천 결과에 대한 부담은 중심 인물뿐 아니라 주변 인물을 통해서도 표현되었다. 화자와 은실은 마지막 화에서 자신들의 과도한 사랑과 참견이 자식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자식과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평생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도 어떤 경우도 자식을 탓하지 않았고 그 결과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어머니 노릇의 부담이 어머니의 절대적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2) 모성 실천의 순결성과 도덕성

그러한 모성의 실천 과정은 순결하고 도덕적이어야 했다. 이는 정숙과 향미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동백에 대한 예외적인 묘사에서 포착할 수 있다. 젊은 정숙은 동백을 데리고 있는 동안은 술집에서 밥, 청소, 빨래는 했지만 '손님상에 앉는'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이 '오빠'라는 말을 배우고, 술집 여자가 동백이 크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자 바로 거리로 나왔다. 손님상에 앉기 시작한 것은 동백을 고아원에 맡기고 난 후 동백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한 이후였다. 또한 재혼은 했지만 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식모로 일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재혼 중에도 의붓자식들의 구박을 받으며 청소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정직한 돈으로 동백에게 줄 보험금을 넣었다. 정숙은 재혼 과정에서 소위 '그런 돈'으로 생활하지도, 동백의 보험금도 넣지 않았다.¹⁹⁾ 정숙의 '과거'가 모두 동백을 위한 희생이었음이 밝혀지면 서 비로소 정숙의 모성이 인정되었다.

반대로 향미의 돈은 부정한 것이었다. 향미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유기한 엄마를 대신하여 어릴 때부터 남동생을 돌봐왔다. 술집에서 일하고 손님상에 앉았으며 협박과 공갈로 돈을 '뜯어내었다'. 그 돈이 남동생에게 보내졌다. 정숙과 마찬가지로 향미 또한 모든 것을 희생하였지만 향미의 실천은 그 방법이 순결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남동생에게 버림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살해되었다.

동백의 경우는 향미와 다르다. 동백은 술집을 운영하는 미혼모이다. '술집', '미혼모'는 둘 다 여성의 타락을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의 모성이 인정되는 것은 성과 관련된 부정한 서사를 걷어낸 이야기 방식에 있다고 판단된다. 술집에서는 '술만 팔고', 치근대는 아저씨들

19) 정숙은 보험금이 아비지 돈으로 들어간 것이니 자기들 것이라는 의붓딸에게 딸 줄 보험금에 '그런 치사스런 돈' 넣지 않았고 청소하면서 번 돈이라고 소리쳤다. '27년을 못 먹인 딸년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밥은 굶어도 안 밀리고 20년을 부었다고 말한다(15 화).

에게는 땅콩을 주지 않거나 ‘치부책’을 쓰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용식과의 연애에서는 손도 ‘트지’ 않았다. 반면 향미는 모든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고 여성성을 도구로 하여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한 타락한 여성이었다.

3) 모성의 성숙과 대물림

〈동백꽃〉에서 모성은 그 자체가 성장 과정을 가진 것으로 여성의 나이 들이 모성의 성숙과 등치되어 있었다. 또한 모성은 지식의 성장과 함께 특정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며 어머니에게는 본능이지만 지식은 그로부터 독립해야 어른이 된다는 모순적인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성숙한 모성이란 어머니의 전체 삶을 오롯이 자식에게 맞추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젊은 엄마와 나이 든 어머니를 비교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었다. ‘성장하는 모성’ 인식은 ‘엄마가 되어 봐도 엄마를 못 따라간다’(20 화)는 동백의 독백에 축약되어 있었다. 나이 든 어머니의 모성은 젊은 엄마의 모성을 앞서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젊은 엄마는 나이 든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모성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 모성은 미숙하고 연약하여 단독으로는 아무도 보호하지 못했다. 젊은 엄마는 덕순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린 자식과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했다. 젊은 정숙은 동백 아빠의 폭력을 피해 기출하였으나 어린 동백도 자신도 보호하지 못했다. 고아원에 유기한 동백을 되찾기 위해 식당 일, 청소, 술집 작부, 가정부 등을 거치면서 정숙은 나이 들었고 그에 따라 연약하고 미숙했던 모성은 강하고 단단해졌다. 젊은 엄마 동백도 성인이지만 용식이나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었고, 필구를 돌보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동백은 향미의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그를 지킬 수도 없었다. 제시키는 ‘미세스 강종렬’이라는 타이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딸인 레베카에게 관심조차 없었다. 이에 비해 나이 든 어머니의 모성은 강하고 견고했다. 이들의 모성은 스스로 충만하고 자립적이었다. 덕순은 삼형제를 먹이기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치며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고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는 돌봄의 영역을 공동체로 확장하였다. 정숙은 어린 시절 ‘먹이지 못한’ 동백에게 ‘목숨 값’을 주기 위해 찾아왔고 동백을 위협하는 연쇄 살인범과 돈을 탐내는 의붓딸의 횡포에 강하게 맞섰다.

〈동백꽃〉에는 모성이 성숙의 과정과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아직은 그 모성이 미숙하고 불완전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동백은 아이처럼 대접받고 모두에게 간섭받거나 보호받아야 했다.²⁰⁾ 해결사 화자와 참견쟁이 은실의 모성은 강하

20) 마을 사람들이 30대의 동백을 ‘동백이’로 부르며 하대하는 것은 동백을 미성숙한 어린 아이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고 절대적이긴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자식을 망친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으로 표현되었다. 그 결과 자식은 현재의 부정적 상황이 모두 ‘엄마 탓’이라고 원망하였다.²¹⁾ 정숙 또한 동백을 유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 이후 동백을 찾기 위해 애쓴 삶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비정한 모성’으로 인식되었다. 이 비정한 모성은 생물학적 속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화자와 은실의 과도한 모성은 양육적 속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어떤 맥락에서건 이러한 묘사에는 어머니의 삶은 철저히 자식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가진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한 모성은 지위나 유산을 물려주듯이 대물림되거나 다른 이들과 공유되었다. <동백꽃>에서 모성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대물림되고 공유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모성의 전승과 공유는 정숙-동백, 덕순-동백, 덕순-정숙의 관계에 잘 나타난다. 동백은 자신의 모성 결핍 경험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마처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남자 복이 없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술집에서 일하는’ 엄마의 팔자가 대물림 될까봐 불안했고 자식을 버리는 모성이 대물림 될까 불안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관계에서만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에서도 모성은 매개체가 되고 전승되었다. 덕순-동백은 서로 ‘베프’였으나 용식이 끼어들면서 갈등했다. 하지만 동백이 ‘자식 키우는 엄마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덕순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결과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또한 젊은 덕순-젊은 정숙은 ‘엄마임’을 매개로 물질적 어려움을 공유했고,²²⁾ 나이 든 덕순-정숙은 성인 자식을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감정을 공유하였다. 이들의 모성은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동시대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었고 전통처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었다.

4) 모성의 공공성

<동백꽃>에서 모성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공성²³⁾을 띄고 있으며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

준다. 이는 단지 미혼모로 술집을 운영하는 신분적 위치 때문만은 아니다.

21) 규태는 자영과 이혼 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애처럼 키워서” 그렇다고 엄마를 비난하며 “나 잘 사는 거 보려면 엄마는 이제 좀 조연으로 빠지”(14 화)라는 장면과 제시카가 “엄마가 맨날 알아서 하니깐 내가 등신천치가 됐”(17 화)다며 원망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임신한 젊은 덕순은 배고픈 젊은 정숙을 가게로 들여 잘 먹어야 쫓이 잘 나온다며 자신이 먹기 위해 만들어둔 족발을 나누어주었다(14 화, 과거 회상)

23) 사이토 준이치(Saito, 2000/2009)는 공공성을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공통적인(common) 것’,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open) 것’으로 의미를 구분한다. 본 글에서는 ‘공통적인

되어 있다. 덕순은 ‘노상 억척 떨다가도 골목 사람들 힘든 일 있을 땐 남몰래 큰돈 꺾주고, ‘천성이 엄마’라 지금도 배고픈 놈은 일단 잡아서 뭐든 먹이고 본다. 덕순은 어린 용식을 키우고 성인 용식을 돌보는 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보살핌의 관리자로서 공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드라마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에서 ‘할크러쉬 덕순의 리더십은 지갑에서 나왔다’고 표현된 것처럼,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억척스럽게 벌었던 돈을 이제는 굶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백이’거나 빌려주는데 사용하는 것이다(KBS, 2019). 동백이 웅산에 처음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미혼모’, ‘술집’, ‘유홍업소’, ‘환락가’, ‘동네 개차반’ ‘아파트 값 떨어져’를 걱정할 때 동백의 ‘베프’를 자칭하며 동백을 ‘품었다’.

모성의 공동체적 실천은 웅산의 여성으로 구성된 ‘웅벤저스’의 역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상호 부재시 서로의 아이를 먹이고 재우며 공동 육아를 실천했다. 어린 용식의 코도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며 업어 키웠고 노규태의 어린 시절에도 이들이 있었다. 그렇게 자란 용식과 규태에게 이들은 여전히 ‘이모인’ 감정적 보호자였다. 이들에게 ‘미혼모’, ‘술집’, ‘이쁜’ 동백은 등장 초기에는 견제의 대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공동 자식으로 입양된 모양새이다. 이는 동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참견하고, 챙기고, 훈수 두는 덕순과 ‘웅벤저스’의 일방향적인 행위에서 잘 드러난다. 모성이 자식에 대해 일방적인 것처럼 이들의 행위도 동백에게 일방적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양육과 돌봄의 사적 차원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한 모성의 공동체적 실천을 보여준다.²⁴⁾ 누구누구의 자식과 같은 구체적 대상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대해 돌봄을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혹은 여성)가 공동체의 수장이라는 점이 어머니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성 리더십’ 혹은 ‘여성주의적 리더십’²⁵⁾을 장담할 수도 없다. ‘여성 중심 유사친족경제공동체’(권김현영, 2019, 11, 14)라고 할 수 있는 ‘번영회’가 웅산의 경제적 실권까지 쥐고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웅산서 00달린 놈 있어보야” 주차나 시키는 것 이외에는 쓸데없고, “웅산에 사내 있어 봐야.....범퍼나 해떡”(1 화)는 무능하고 무력한 남성 집단만 있고 남성 연장자가 없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환상이기 때문이다.

것(common)’으로서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24)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덕순과 ‘웅벤저스’의 어머니 역할은 옛 마을과 같은 상호신뢰에 기초한 돌봄 공동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조한혜정(2006)의 돌봄 공동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서로 돌보는 문화를 강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장수경, 2012).

25)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새로이 정의한 방식에 의하면, 리더십은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 체제 안에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상화, 2005, 15쪽)이다.

5) 모성과 여성성의 회색지대

〈동백꽃〉에서 어머니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의 관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여주인공의 연애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은 전통적인 모성적 가치들과 충돌한다(장혜진, 2010). 동백의 대사 “저 그냥 엄마 할래요. 여자 말고 그냥…….엄마로 행복하고 싶어요”(18 화)는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모성의 우선성을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에는 ‘여성의 행복 = 어머니로서의 삶’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 속에서 부여된 어머니의 역할은 여성이 갖고 있던 자신에 대한 개별적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아이를 보살피는 모성적 존재라는 정체성으로 대체하게 만든다. 이러한 모성적 정체성은 개별적 인격체로서 여성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자존감을 ‘어머니’로서 지켜가게 만들고 여타의 정체성과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발한다(양민석, 2005). 이러한 관념은 개별적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모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착하지 못하게 하며, 어머니가 존재하는 시공간의 변화와 모성의 실제적인 변화 양상들 또한 포착할 수 없게 만든다(양민석, 2005).

〈동백꽃〉에서 나이는 어머니들은 모두 남성 동반자가 없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온전히 어머니 역할에만 전념하였다. 따라서 모성과 여성성²⁶⁾의 갈등은 젊은 엄마들에게만 나타났다. 동백을 수식하는 말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쁘다’이다. 이는 용식 뿐 만 아니라 용산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해 반복적으로 표현되었고, ‘용산의 다이애나’, ‘용산의 여왕’이라는 표현과 함께 동백의 여성적 매력을 나타냈다. 여성의 성적 매력과 욕망은 모성과 충돌하는 하나의 큰 축이다. 하지만 모성과 여성성의 충돌은 ‘엄마로서 행복하겠다’는 동백의 한 마디에 의해 모성의 승리로 끝났다. 동백이 미혼모 입에도 비난받지 않은 것은 그녀가 출산과 양육 어느 면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성으로서의 삶을 버릴 준비가 되어있는, 즉 모성의 우선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니라 ‘여자 혹은 자신’으로 살고자 한 제시카와는 반대이다.

〈동백꽃〉은 미혼모나 엄마의 연애 및 재혼에 개방적인 이야기여서 얼핏 보면 모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회색지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성과 여성성에 대해 새로운 서사를 쓰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공존을 받아들이지만 우선순위는 모성에 두는 방식

26) 여기서 여성성이라는 용어는 성적 매력이라고 생각되는 외면적 아름다움을 포함하여 사용되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여성성은 모성처럼 사랑과 포용성을 나타내는 내면적 부드러움과 더불어 성적 매력이라고 생각되는 외면적 아름다움으로 거론된다(부정남, 1999 재인용).

으로 마무리했다. 이러한 이야기 방식은 모성과 여성성은 둘 다 지켜질 수 있을 때만 공존 가능하며 태일의 상황에서는 모성이 우선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모성은 어떤 경우에도 버려져서는 안 될 불가피한 것으로서 강조되었다. 성차별에 대한 거부감과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는 어머니는 더 이상 여성적 삶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꽃>은 여성성을 모성의 실천을 보장한 어머니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처럼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여성으로서의 삶에 한계를 설정했다.

6) 모성 결핍의 대가

<동백꽃>에서 모성 결핍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어머니가 돌보지 않는 아이, 여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존재를 통해 표현되었다. 어린 동백과 어린 향미, 성인 향미와 성인 홍식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어린 동백은 주변을 배회한 엄마의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웅산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린 향미는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²⁷⁾ 엄마의 돌봄도 공동체의 돌봄도 받지 못한 성인 향미와 홍식은 살인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었다. 어머니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모성적 보살핌을 수행하기 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여성에게 모성의 실현이 전가되기 쉽다. 하지만 홍식과 향미 주변에는 그러한 여성이 없었다. 규태와 제시키는 덜 이상적인 어머니일지라도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에 몰리지는 않았다. 아내 없이 홀로 홍식을 돌보는 홍식의 아버지는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려 아들의 살인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었으나 연쇄 살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성인 향미와 홍식의 현재를 통해 어머니(혹은 여성)의 모성적 실천과 보살핌이 개인과 공동체의 존속에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었다.

6. 결론 및 제언

<동백꽃>은 존재할 수 없는 모성에 관한 판타지를 이야기한다. 그 판타지에는 모성은 여성의 본능이자 운명이며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모성의 절대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한 모성의 실천은 순

27) 조안 트론토(Tronto, 1993)는 보살핌의 네 가지 국면을 염려하는(caring about) 단계, 돌보는(taking care of) 과정, 보살핌을 실천하는(care-giving) 과정,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보살핌에 응답하는(care-receiving)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마지막 과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보살핌의 욕구가 실제로 충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향미는 이 중 첫 번째 단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며, 자녀의 성장과 함께 성숙하여 나이든 어머니에게서 젊은 엄마에게로 대물림된다. 어머니의 역할은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며, 어머니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은 공존할 수는 있지만 다른 정체성으로서의 삶은 모성의 역할을 다할 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모성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어서 모성 결핍 대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존속에 치명적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어머니 재현, 혹은 모성에 관한 서사가 변화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간간히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동백꽃>의 모성 이야기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회귀가 낫설지는 않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IMF시기에도 전통적인 어머니, 강한 어머니가 드라마 속으로 복귀했었기 때문이다.²⁸⁾ 이 드라마들은 가난한 시절을 살아내며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낸 '자식 바라기' 어머니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었다(권정숙, 1998, 3, 14). 하지만 그 중 <아씨>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인고의 여인상만 강조한다고 여성 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²⁹⁾

2019년 현재, 우리 사회가 강인한 어머니, 모성에 관한 판타지를 들려주는 <동백꽃>에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역사에서 사회의 위기시에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형적인 역할이 남성을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강인한 모성이었다(신경아, 1999). 위기 때마다 강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여성에게 일종의 안전핀(buffer)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행에 이유가 있다. 강하지만 희생적인 전통적인 어머니는 남성이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메우고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체(신경아, 1999)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및 모성에 대한 인식 변화, 모성에 대한 재사유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러한 판타지가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저지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동백꽃>은 단지 말해지지 못할 뿐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심연 속에 숨어있는 실존할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살짝 건드려준 것인지도 모른다. <동백꽃>은 그러한 모성의 환상을 과대 표현하였고 이 환상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실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현실을 견디게 하는 모순적인 힘으로 기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더 이상은 남성의 임금으로만 생활할 수 없게 된 생존 환경과 점차 낮아지는 출생률을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서 생계를 돌보고 먹이는 어머니와 출산·양육·정체성 차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여주인공은, 실제 어머니들의 현실 경험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모성상인 것이

28) <아씨>(1997, KBS), <육남매>(1998, MBC), <사랑해 사랑해>(1998, SBS)가 대표적이다. 이 중 <아씨>는 1970년 TBC의 동명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 것이다. 이들 드라마는 모두 20~3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전체 구성인 총 50회를 모두 방영하고 종영하였다.

다. 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강력한 갈망, 생물학적 모성에 대한 가부장적 기대, 모성의 외연 확장
과 주도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기대가 맞물리면서 1997년 〈아씨〉 때와 같은 비판과 저항은 조용히
삼켜진 채 2019년 최고의 드라마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³⁰⁾는 명제 안에는 ‘더 이상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 여성주의자
들의 외침이 응축되어 있다(김영옥, 2005). 이 외침은 단순히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희생자로서 자의로운 타의로든 타의로든 가부장제의 존속에 공모해 온 어머니들의 개별적인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동백꽃〉에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는 동백의 외침은 아이를 유기함으로써 가부장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머니를 향한 비난이자 가
부장제 질서 밖으로 튕 지도 모를 자신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젊은 엄마 동백을 통해 가부장적 기획 안의 전형적인 모성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동백꽃〉은 모
성에 관한 일반적 가정들, 즉 모성의 본질성, 무조건성, 대치 불가능성을 어머니 이야기 속에 투
영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기도 한 ‘어머니’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렸다. 그 가정이 어머니의 현실 경험에서는 얼마나 허구적인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백꽃〉의 모성 이야기를 드라마 텍스트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지만, 이러한
모성 관념과 규범이 실제로는 어떻게 평가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수용자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새로운 연구 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30) 리치(Rich, 1976/ 1995)의 저서를 한국판으로 번역한 책의 서명이기도 한 이 주장에는 제도로서의 모성과 경험으
로서의 모성을 분리하여 제도로서의 모성에 내포된 가부장적 억압성을 제거하면서 모성을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해
방할 수 있는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References

- Badinter, E. (1980). *(L')amour en plus: histoire de l'amour maternel, XVIIe-XXe siecle*. Paris: Flammarion.
- Bu, J. N. (1999). Femininity and motherhood in the mass media. In Y. Shim, J. Jeong & J. Yun (Eds.), *Discourse and Reality of Motherhood: Mother's Sex, Life and Identity* (pp. 319-341). Seoul: Nanam.
- Chae, S. J. (2009). *Discourse of Motherhood in Formation of Modern Education*. Seoul: Hakjisa.
- Cheon, S. (2003). Discussion on Motherhood and Recognition of Protecting Motherhood by Chinese Intellectuals in the 1920s-30s. *The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esearches*, 24, 207-245.
- Cho, H. (2006). From a construction state to a caring society. In H. Cho (Ed.), *From Family to School From School to Village: A Community of Care and Learning* (pp. 13-41). Seoul: Alternative Culture Press.
- Choi, E. (2014).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Project and Fragmentation of Motherhood in Korean Wome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Y.-H. (2019). A Study on Korean television dramas after the Mid-2000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3(5), 221-252.
- Davis, A. (2012). *Modern Motherhood: Women and Family in England, 1945-2000*.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ong-A Ilbo. (2020, January 1). *Gong Hyo-jin won the KBS acting grand prize... including Kang Haneul and Lee Jeong-eun, 'When camellia blooms' won 12 prizes*. Dong-A Ilbo. Retrieved 1/8/20 fr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1/99036293/1>
- Gallup Korea (2019, November 12). *Korean favorite TV shows-November 2019*. Retrieved 1/8/20 from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63>
- GOODDATA Corp. (2019, November 26). *Online TV Audience Ratings - drama ranking of the 3rd week of November 2019*. Retrieved 1/8/20 from <https://mygooddata.tistory.com/825>
- Hong, J. (2009a). *The Symbolic Boundaries of Motherhood in TV Drama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J. (2009b). The Symbolic Boundaries of Motherhood in TV Drama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3(6), 284-321.
- Jang, H. J. (2010). Maternal ideology, still valid? *Korean Theatre Journal*, 75, 66-72.
- Jang, S.-J. (2012). A Study of Care in Community: Focus on the MapoDoore 'Okedongmu'.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8(2), 1-31.

- Jeong, J. Y. (2005). The history of Korean patriarchy and motherhood. In H. Jo (Ed.), *Feminist values and maternal leadership* (pp. 149-169).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BS (2019). *When the camellia blooms 'Characters'*. Retrieved 1/8/20 from <http://program.kbs.co.kr/2tv/drama/camellia2019/pc/detail.html?smenu=e126f2>
- Kim, H. (2004). Meta analysis on the television narrative studie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59, 167-197.
- Kim, H., & Kim, M.-H. (1996). Patriarchal narrative strategies of television drama. *Media & Society*, 6, 6-50.
- Kim, K. W. (2005). *Mothering Discussion shown in Noh Hee Kyung's Television Dram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2018). Expanding and Rethinking 'Motherhood': Focused on the TV Drama 'Mother'. *The Journal of Korean Drama and Theatre*, 61, 333-368.
- Kim, S. J. (2017, February 26). *Since the birth rate is low, women with high-specs need to get married with a lower standard?* Nocut News. Retrieved 1/8/20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4740102>
- Kim, Y. J. (2020, April 24). *At the Korean Producer Awards, 14 programs including 'Giant PengTV', 'SBS Special-Yohan · Seadoll · Yonghyun' won awards*. Pd Journal. Retrieved 5/5/20 from <http://www.pdjourn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65>
- Kim, Y. O. (2005). Remembering Mothers' History: Raising Women's Leadership in Women's Genealogy. In H. Jo (Ed.), *Feminist values and maternal leadership* (pp. 117-147).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ozoloff, S. (1987). Narrative Theory and Television. In R. Allen (Ed.),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pp. 67-100).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Kwon, J. S. (1998, March 14). *Strong mother, I miss you*. The Hankyoreh. Retrieved 1/8/20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 KwonKim, H. Y. (2019, November 14). *'When Camellia Blooms', a drama interpreted as a group growth narrative for women*. Cine 21. Retrieved 1/8/20 from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238
- Kwon, Y.-h. (2019). Representation Aspect and Meaning of Maternal Narrative: Based on the TV drama, 'Mothe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82, 537-567.
- Lee, E. (2019). 'To be a mother is to give yourself all up for another little being': A Study on Motherhood Practice Represented in TV Drama Mother. *Family and Culture*, 31(3), 34-79.
- Lee, G. H. (2019, December 3). *'Differences in happiness' seen through the conversation between Dongbaek*

- and her mom*. Ohmynews. Retrieved 1/8/20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466
- Lee, J. H. (2019, November 22). ‘When camellia blooms’ that comforted all of us end 23.8% view rating. Yonhap News Agency. Retrieved 1/8/20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056500005>
- Lee, J. H. (2019, December 4). Lee, Jeong-eun “ ‘When Camellia blooms’ is meaningful because it show various types of mothers”. Yonhap News Agency. Retrieved 1/8/20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82400005?input=1195m>
- Lee, J. O. (1999). Feminism and Motherhood: dialectic of rejection and praise. In Y. Shim, J. Jeong & J. Yun (Eds.), *Discourse and Reality of Motherhood: Mother's Sex, Life and Identity* (pp. 43-67). Seoul: Nanam.
- Lee, K. (2009). Feminist Rethinking of Motherhood. *Korean Feminist Philosophy*, 11, 173-197.
- Lee, S.-W. (2005). Feminist Reconceptualization of Leadership and Power. *Women's Studies Review*, 22(1), 3-22.
- Lee, Y. J. (1999). ‘Maternal theory’ from women's perspective. In Y. Shim, J. Jeong, & J. Yun (Eds.), *Discourse and Reality of Motherhood: Mother's Sex, Life and Identity* (pp. 21-41). Seoul: Nanam.
- Lee, Y. J. (2019, November 11). ‘When the Camellia Blooms’ talk about motherhood, not Kkabul-i story. Sports Kyunghyang. Retrieved 1/8/20 from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11111712003&sec_id=540201&pt=nv
- Lee, Y. M. (2011). In the drama, mothers began to appear as entrepreneurs. *Hwanghae Review*, 71, 331-338.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d.).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Retrieved 1/8/20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AA%A8%EC%84%B1>
- Propp, V. (1970). *Morphology of the folktale*.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Rich, A. C. (1976).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 NY: Norton.
- Ruddick, S. (1995).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New York, NY: Norton.
- Saito, J. (2000). *publicness*. Tokyo: Iwanami Shoten.
- Shin, K. A. (1999). Change of motherhood in the 1990s: from the personification of sacrifice to a human with desire. In Y. Shim, J. Jeong, & J. Yun (Eds.), *Discourse and Reality of Motherhood: Mother's Sex, Life and Identity* (pp. 389-413). Seoul: Nanam.
- Song, J. Y. (2019, November 16). *Dongbaeg's words were more shocking than the Kkabul-i's identity*.

Ohmynews. Retrieved 1/8/20 from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87418

Thurer, S. L. (1995). *The Myths of Motherhood: How Culture Reinvents the Good Mother*. London, UK: Penguin Books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NY: Routledge.

Won, Y. (2002). Popular culture and Feminism. In Y. Won, E. Han, & J. Kwang (Eds.), *Mass media and Feminism* (pp. 17-67). Seoul: Hannarae.

Yang, M. S. (2005). Social expansion of motherhood and female leadership. In H. Jo (Ed.), *Feminist values and maternal leadership* (pp. 89-115).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Yang, S. Y. (2019, November 22). *Go Du-shim-Lee Jeong-eun, Mothers in 'When Camellia Blooms' who cried us*[MK Star]. Maeil Business Newspaper. Retrieved 1/8/20 from <https://www.mk.co.kr/star/broadcasting-service/view/2019/11/972540/>

Yun, H. R. (2005). The problem of motherhood towards tomorrow: To bridge the form of motherhood and feminist care style. In H. Jo (Ed.), *Feminist values and maternal leadership* (pp. 63-87).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일 2020년 4월 9일

게재 확정일 2020년 7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0년 8월 4일

부록

-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1/8/20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AA%A8%EC%84%B1>
- 굿데이터코퍼레이션 (2019, 11, 26). TV화제성 지수-2019년 11월 3주차 드라마 순위. Retrieved 1/8/20 from <https://mygooddata.tistory.com/825>
- 권김현영 (2019, 11, 14). [동백꽃 필 무렵②] 여성들의 집단성장서사로 읽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씨네21>. Retrieved 1/8/20 from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238
- 권양현 (2019). 모성 서사의 재현 양상과 의미 -텔레비전드라마 <마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2집, 537-567.
- 권정숙 (1998, 3, 14). 강인한 어머니, 당신이 그림습니다. <한겨레>. Retrieved 1/8/20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 김강원 (2005). <노희경의 TV 드라마에 나타난 모성담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라 (2018). '모성'의 확장과 재사유: TV드라마 <마더>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61집, 333-368.
- 김수정 (2017, 2, 26). 출생률 낮으니 고스펙 여성들은 눈 낮춰 결혼하라? <노컷뉴스>. Retrieved 1/8/20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4740102>
- 김영옥 (2005). 어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여성의 계보학에서 여성 리더십을 길어올린다. 조형 (편).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117-147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윤정 (2020, 4, 24). 한국PD대상, '자이언트 팽TV'·SBS 스페셜-요한, 씨돌, 용현' 등 14편 수상. <PD저널>. Retrieved 5/5/20 from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65>
- 김훈순 (2004). 텔레비전 서사연구의 메타분석. <방송연구>, 통권 59호, 167-197.
- 김훈순·김명혜 (1996).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전략. <언론과 사회>, 통권 6호, 6-50.
- 동아일보 (2020, 1, 1). 공효진, KBS 연기대상 수상...강하늘·이정은까지 '동백꽃' 12관왕. Retrieved 1/8/20 fr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1/99036293/1>
- 부정남 (1999).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성과 모성.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319-341쪽). 서울: 나남출판.
- 송주연 (2019, 11, 16). '까불이' 정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동백이의 그 말. <오마이뉴스>. Retrieved 1/8/20 from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

CD=A0002587418

- 신경아 (1999). 1990년대 모성의 변화: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389-413쪽). 서울: 나남출판.
- 양민석 (2005). 모성의 사회적 확장과 여성 리더십. 조형 (편).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89-115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소영 (2019, 11, 22). 고두심 이정은, 우릴 울린 '동백꽃'의 엄마들(MK스타). <매일경제>. Retrieved 1/8/20 from <https://www.mk.co.kr/star/broadcasting-service/view/2019/11/972540/>
- 원용진 (2002). 대중문화와 여성 해방주의. 원용진·한은경·강준만 (편). <대중매체와 페미니즘> (17-67쪽). 서울:한나래.
- 윤희린 (2005). 내일을 향해서 본 모성의 문제: 모성 양식과 여성주의적 보살핌 양식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하여. 조형 (편).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63-87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경아 (2009). 모성에 대한 여성주의 재사유. <한국여성철학>, 11권, 173-197.
- 이경희 (2019, 12, 3). 동백이와 엄마의 대화 통해 본 '행복에 대한 차이'. <오마이뉴스>. Retrieved 1/8/20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466
- 이상화 (2005). 리더십과 권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개념화. <여성학논집>, 22집 1호, 3-22.
- 이연정 (1999).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21-41쪽). 서울: 나남출판.
- 이영미 (2011). 드라마 속 기업가가 어머니로 바뀌었다. <황해문화>, 71권, 331-338.
- 이유진 (2019, 11, 11). '동백꽃 필 무렵' 까불이 아닌 모성을 말하다. <스포츠경향>. Retrieved 1/8/20 from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11111712003&sec_id=540201&pt=nv
- 이은지 (2019). "엄마가 되는 건 다른 작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줄 때예요": TV 드라마 <마더>에 재현된 모성 실천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1집 3호, 34-79.
- 이정옥 (1999). 페미니즘과 모성: 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43-67쪽). 서울: 나남출판.
- 이정현 (2019, 11, 22). 우리 모두를 위로한 '동백꽃 필 무렵' 23.8% 종영. <연합뉴스>. Retrieved 1/8/20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056500005>
- 이정현 (2019, 12, 4). 이정은 "동백꽃 필 무렵, 다각적 엄마 모습 보여줘 의미". <연합뉴스>. Retrieved

- 1/8/20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82400005?input=1195m>
- 장수정 (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2호, 1-31.
- 장혜진 (2010). 모성 이데올로기, 아직 유효한가? <연극평론>, 통권 57호, 66-72.
- 정영희 (2019).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 <한국방송학보>, 33권 5호, 221-252.
- 정지영 (2005). 한국 가부장제의 역사와 모성. 조형 (편).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149-169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한혜정 (2006).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조한혜정 (편),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13-41쪽).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채성주 (2009). <근대교육 형성기의 모성 담론>. 서울: 학지사.
- 천성립 (2003). 1920·30년대 중국지식인의 ‘모성’담론과 ‘모성보호’인식. <중국사연구>, 24집, 207-245.
- 최은영 (2014). <한국 여성의 모성 기획과 균열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갤럽 (2019, 11, 12).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 2019년 11월. Retrieved 1/8/20 from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63>
- 홍지아 (2009a). <TV드라마에 나타난 모성의 서사전략과 상징 경계의 구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지아 (2009b). TV드라마에 나타난 모성재현의 서사전략과 상징적 경계의 구축. <한국방송학보>, 23권 6호, 284-321.
- KBS (2019). 동백꽃 필 무렵 ‘등장인물’. Retrieved 1/8/20 from <http://program.kbs.co.kr/2tv/drama/camellia2019/pc/detail.html?smenu=e126f2>
- 齋藤純一 (2000). *思考のフロンティア 公共性*. 東京: 岩波書店.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서울: 이음.
- Badinter, E. (1980). *(L')amour en plus: histoire de l'amour maternel, XVIIe-XXe siecle*. Paris: Flammarion.
- 심성은 (역) (2009). <만들어진 모성>. 서울: 동녘.
- Kozoloff, S. (1987). Narrative Theory and Television. in R. Allen(Ed.),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pp.67-100).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김훈순 (역) (1992).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울: 나남.

- Rich, A. C. (1976).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 NY: Norton. 김
인성 (역) (1995).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서울: 평민사.
- Ruddick, S. (1995).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New York, NY: Norton. 이해정 (역)
(2002).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Thurer, S. L. (1995). *The Myths of Motherhood: How Culture Reinvents the Good Mother*. London, UK:
Penguin Books. 박미경 (역) (1995). <어머니의 신화>. 서울: 까치.

텔레비전 드라마 속 모성 판타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동백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정영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투영된 어머니 및 모성에 관한 관념과 규범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KBS2-TV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2019)이다. 이 드라마는 6.3%의 시청률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면서 23.8%로 종영하였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상을 받아 사실상 시장성과 화제성, 작품성 등 모든 면에서 인정받았다. <동백꽃>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스토리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야기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그 중심에는 대중문화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모성 판타지가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텍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내용의 심층적 의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텔레비전과 시청자, 텔레비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특히 등장인물, 주요 인물 간의 관계, 주요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교차하는 에피소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가 내포한 가치와 관념을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드라마의 대사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비교적 명료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양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어머니, 어머니 역할, 모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대사는 모성에 대한 규정과 규범의 판단 근거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동백꽃...>에는 모성이 어머니(여성)와 연결된 절대적 가치로서, 본능이고 운명 이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조건성을 내포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한 모성의 실천 과정은 도덕적이고 순결해야 했다. 또한 모성은 특정 방향으로 성숙의 단계를 거치며, 그 성숙은 지식의 성장 단계와 맞물려있고 지식의 요구에 맞춰진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그러한 모성은 대물림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모성과 여성성은 공존할 수 있는 가치로 표현되었으나, 모성이 여성으로서의 삶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인식되었다. 또한 모성 결핍 대가의 치명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실존할 수 없는 모성에 대한 환상, '정상적 모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해지지 않았을 뿐, 우리 사회의 심연 속에 숨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백꽃...>의 모성 이야기는 여성 스스로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기도 한 '어머니'의 가능성을 가부장적 인식의 틀로 제한하고 있었다.

핵심어: 텔레비전 드라마, 어머니, 모성, 여성주의